

풍암고 펜싱 김민서 '우승 제조기'

올해 3개 대회 모두 제페 플러레 시즌 전관왕 도전 단체전에선 두번째 3위



한국중고펜싱연맹회장배 전국남녀펜싱선수권대회에서 선전한 풍암고 펜싱부. 왼쪽부터 박민준·김의빈·김민서·장진우·김도형·천승환. <광주시교육청 제공>

풍암고 펜싱부가 제32회 한국중고펜싱연맹회장배 전국남녀펜싱선수권대회에서 선전했다. 풍암고 김민서는 올 시즌 3개 대회에 출전해 개인전 3차례 우승을 일궈냈다. 단체전에서는 2차례 3위에 오르는 등 꾸준히 성적을 내고 있다. 9일 광주시교육청에 따르면 풍암고 펜싱부 김민서(3년)가 최근 열린 이 대회 플러레 남자 개인전에서 우승했다. 청소년 국가대표인 김민서는 올해 개최된 3개 전국대회 플러레 개인전에 출전해 모두 우승, 시즌 전관왕 달성에 도전하고 있다. 이번 김민서 대회는 올해 3번째 열린 전국대회다. 플러레 팀도 남자 단체전 3위에 올랐다. 김민서·장진우(이상 3년), 김도형·김의빈(이상 2년) 등은 단체전에서 고르게 활약했다. 풍암고는 지난 2010년 플러레(남자)팀을 창단했다. 서기화 풍암고 교장은 "올해는 시즌 초반임에도 3개 대회에 출전해 개인전 우승 3회, 단체전 3위 2회 등 두각을 드러내고 있다"며 "힘든 상황 속에서 최선을 다한 학생들이 자랑스럽다"고 말했다. /윤영기 기자 penfoot@kwangju.co.kr



9일 오후 경상남도 양산 에이원CC에서 열린 제63회 KPGA 선수권대회 with A-ONE CC FR 우승자 김성현이 환호하고 있다. /연합뉴스

골프 2부투어 김성현 '인생 역전'

월요일에선 거쳐 출전...KPGA 선수권 우승

2부투어에서 뛰는 김성현(22)이 월요일에선 거쳐 출전한 한국프로골프(KPGA)투어 생애 첫 우승을 메이저급 대회 KPGA 선수권대회를 제패하며 '인생 역전'을 이뤘다. 김성현은 9일 경남 양산 에이원 컨트리클럽 남서코스(파70)에서 열린 대회 최종 라운드에서 버디 4개와 보기 1개를 묶어 3언더파 67타를 쳤다. 4라운드 합계 5언더파 275타의 김성현은 함정우(26), 이재경(21) 등 공동 2위 2명을 1타차로 따돌리고 정상에 올랐다. 국가대표를 거쳐 지난해 일본프로골프투어(JGTO)에서 먼저 프로 무대에 데뷔한 김성현은 KPGA 코리안투어 출전 자격이 없어 2부투어인 스피릿투어를 활동했다. 스피릿투어에서 한차례 우승하며 상급랭킹 1위를 달리던 그는 지난 3일 KPGA 선수권대회 월요일에선 응시해 출전권을 따냈다. 합격자 8명 가운데 8위로 막차를 탔다. 코리안투어에서 예선을 거쳐 출전한 선수가 우승한 것은 김성현이 처음이다. 김성현은 공동 45위를 한 KPGA오픈에 이어 두 번째 코리안투어 출전이다. 우승 상금 1억8000만원을 받은 김성현은 단박에 상급랭킹 1위를 꿰찼고, 2025년까지 코리안투어 출전권과 KPGA 선수권대회 평생 출전권, 그리고 미국

프로골프(PGA)투어 더CJ컵 출전권까지 받았다. 3라운드를 선두에 4타차 공동 8위로 마친 김성현은 아무도 우승 후보로 예상하지 못했다. 깊고 길긴 러프와 극단적으로 어려운 핀 위치에 바람까지 불어 좁게 언더파 스코어를 내기 힘든 코스에서 김성현은 8번(파4), 9번 홀(파5) 연속 버디로 우승 경쟁에 뛰어들었다. 2개홀 연속 버디로 선두 함정우에 1타차로 따라붙은 김성현은 한때 6명이 선두에 오르는 혼전 속에 뜻밖하게 타수를 지키며 공동선두 그룹에 합류했다. 17번 홀(파3)에서 홀인원성 버디로 마침내 1타차 단독 선두에 올라선 김성현은 연장전에 대비해 퍼트 연습을 하다가 2위 그룹이 더는 타수를 줄이지 못해 우승이라는 소식을 들었다. 10번 홀(파4)에서 보기를 적어냈을 뿐 17개 홀을 모두 파로 막아낸 함정우는 1타차 공동 2위(4언더파 276타)로 아쉬움을 삼켰다. 10번 홀에서 경기를 시작한 작년 신인왕 이재경은 데일리 베스트 스코어는 5언더파 65타의 맹타를 휘둘러 준우승했다. 선두로 최종 라운드에 나선 박정민(27)은 6타를 잃고 공동 14위(이븐파 280타)로 내려앉았다. 디펜딩 챔피언 이원준(35)도 공동 14위로 대회를 마쳤다. /연합뉴스

광주시체육회, 생활체육 프로그램 재개

광주시체육회가 생활체육 프로그램 운영을 재개했다. 광주시체육회는 "지난 2일 광주시가 코로나19 사태로 사회적 거리 두기를 1단계로 하향 조정함에 따라 시민들을 위한 생활체육 프로그램을 제한적으로 운영한다"고 9일 밝혔다. 재개된 생활체육프로그램은 남구사직공원 에어

로빅 교실, 문화예술회관 산책로 기체조 등 실외종목 40여 개 프로그램이다. 실내종목은 코로나19 확산 추이를 지켜보며 단계적으로 재개할 방침이다. 유소년, 어르신 등 고위험군 프로그램이 많은 공공스포츠클럽도 사회적 거리 두기 2단계 수준의 조치사항을 적용해 부분적으로 운영한다. /윤영기 기자 penfoot@kwangju.co.kr

김창준 체육회장은 "코로나19로 육체·정신적으로 지쳐있는 시민들이 생활체육 프로그램을 통해 삶의 활력을 되찾길 바란다"며 "프로그램을 이용하는 시민들께서는 방역수칙을 철저히 준수하는 등 방역에 적극 협조를 당부드린다"고 말했다. 생활체육 프로그램은 12월까지 무료로 운영하며 광주시민이라면 누구나 참여할 수 있다. 자세한 사항은 광주광역시체육회 시민체육진흥팀(062-604-1932~4)에 문의하면 된다. /윤영기 기자 penfoot@kwangju.co.kr

NBA MVP 후보에 아테토쿤보·하든·제임스

야니스 아테토쿤보(26·밀워키)와 제임스 하든(31·휴스턴), 르브론 제임스(36·LA 레이커스)가 2019-2020시즌 미국 프로농구(NBA) 최우수선수(MVP)를 놓고 다툰다.



왼쪽부터 NBA MVP 후보 아테토쿤보·하든·제임스.

이들은 9일(한국시간) NBA가 발표한 MVP 후보에 이름을 올렸다. 세 선수는 모두 MVP 수상 경력을 보유한 스타들이다. "그리스 괴인" 아테토쿤보는 2018-2019시즌에 이어 2년 연속 최고 선수 자리를 노린다. 지난 시즌 정규리그에서 경기당 27.7득점 12.5리바운드 등을 기록하고 MVP를 거머쥐었던 그는 이번 시즌에는 29.7점 13.7리바운드로 개인 최고 수준의 성적을 내고 있다. 소속팀 밀워키도 아테토쿤보의 활약을 앞세워 동부 컨퍼런스 선두에 올랐다. 2년 연속 MVP 수상이 유력시되는 아테토쿤보는 '올해의 수비수' 부문에도 앤서니 데이비스(LA 레이커스), 루디 고버트(유타)와 함께 후보에 포함돼 2관왕에 도전한다. 2017-2018시즌 MVP인 하든은 평균 34.3점으로 전체 득점 선두를 달리고 있다.

통산 4회(2008-2009, 2009-2010, 2011-2012, 2012-2013) MVP에 빛나는 제임스는 어시스트에서 10.3개로 이번 시즌 전체 1위에 올라 있고, 25.3점 8.0리바운드로 LA 레이커스의 서부 컨퍼런스 선두 질주에 앞장섰다. 신인상은 자 모란트(멤피스), 켄드릭 넌(마이애미), 자이언 윌리엄스(뉴올리언스)의 경쟁으로 압축됐다. 식스맨상 후보는 몬트렐 헤럴(LA 클리퍼스), 데니스 슈뢰더(올라호마시터), 루 윌리엄스(LA 클리퍼스)다. 감독상은 마이크 벤틀러(밀워키), 빌리 도너번(올라호마시터), 니 너스(토론토) 감독이 후보에 올랐다. 이번 시즌 MVP와 신인, 수비수, 감독, 식스맨 등 개인상은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 여파로 시즌이 중단된 3월 12일까지의 성적만으로 수상자를 가린다. /연합뉴스

NBA 올랜도 매직 2년 연속 PO 진출

미국프로농구(NBA) 올랜도 매직이 2년 연속 플레이오프 진출에 성공했다. 올랜도는 8일(한국시간) 미국 플로리다주 키시미의 HP 필드하우스에서 열린 2019-2020 NBA 정규리그 필라델피아 세븐티식서스와 경기에서 101-108로 졌다. 그러나 이후 열린 경기에서 동부 컨퍼런스 9위 워싱턴 워저스가 뉴올리언스 펠리컨스에 107-118로 패해 올랜도가 남은 경기 결과와 관계없이 플레이오프 진출 티켓을 확보했다. 올랜도는 32승 38패가 됐고, 워싱턴은 24승 45패를 기록했다. 동부 컨퍼런스의 경우 8, 9위 팀의 승차가 4.5경기 이상 벌어지게 되면서 플레이오프에 나갈 8개 팀이 모두 확정됐다. 밀워키 벅스가 동부 컨퍼런스 1위를 차지했고 토론토 랫츠, 보스턴 셀틱스, 마이애미 히트, 인디애나 페이서스, 필라델피아, 브루클린 네츠, 올랜도까지 플레이오프에 나가기 됐다. 반면 서부 컨퍼런스에서는 8위 멤피스 그리즐리스(33승 37패)와 9위 포틀랜드 트레일블레이저스(32승 38패)의 승차가 1경기에 불과해 플레이오프 진출권 결정전을 치를 가능성이 크다. 여기에 10위 샌안토니오 스퍼스(30승 38패), 공동 11위 뉴올리언스와 피닉스 선스(이상 30승 39패)까지 총합이 높아서 있어 남은 한 장의 플레이오프 진출 티켓의 향방을 점치기 어렵다. /연합뉴스

KLPGA팀, 해외파 언니들 물리치고 2년 연속 우승

박인비 인비테이셔널

한국여자프로골프(KLPGA) 투어의 대표주자들이 미국·일본 등에서 활약하는 '언니들'을 물리치고 오렌지아일랜드 챔피언스트로피 박인비 인비테이셔널(총상금 12억원)에서 2년 연속 우승을 차지했다. KLPGA 투어 팀은 9일 경북 경주 블루윈 디아너스 컨트리클럽에서 열린 대회 마지막 날 싱글 매치 플레이에서 승점 6점을 따내 합계 10.5-7.5로 해외연합팀을 꺾었다. 올해 대회에서는 미국과 일본 등 외국 투어에서 활약하는 선수 13명이 한 팀을 이루고, 한국여자프로골프(KLPGA) 투어 소속 13명이 맞서 대결을 펼쳤다. 7일 포볼(두 명의 선수가 한 조를 이뤄 각자의 공으로 표본한 뒤 더 좋은 성적을 그 팀의 점수로 삼는 방식), 8일 포섬(두 명의 선수가 한 조를 이뤄 공 한 개로 경기하는 방식), 이날 싱글 매치 플레이가 예정돼 있었으나 8일 경기가 악천후로 취소되면

서 포볼과 싱글 매치 플레이 결과를 합해 우승팀을 가렸다. KLPGA 투어 팀은 포볼에서 4승 1무 1패로 압승하고, 싱글 매치 플레이에서 4승 4무 4패를 기록하며 우승 상금 7억원을 가져갔다. 2017년 첫 우승에 이어 지난해와 올해 2년패를 달성한 KLPGA 투어 팀은 6회째인 이 대회 역대 전적에서 3승 3패로 동률을 이뤘다. KLPGA 투어 팀이 승점 4.5-1.5로 앞선 가운데 시작한 이날 초반 오지현(24)이 신지애(32)를 5홀 차로, 유해란(19)이 허미정(31)을 4홀 차로 제압해 6.5-1.5로 격차가 벌어졌으나 해외연합팀의 반격도 만만치 않았다. 하지만 임희정(20)이 이정은(24)에게 17번 홀까지 두 홀 차로 앞서 승리하고, 박현경(20)이 오보미(32)를 한 홀 차로 따돌리면서 KLPGA 투어 팀이 9.5-5.5로 달아나 우승을 확정 지었다. 마지막 경기는 배선우(26)와 김아림(25)이 무승부로 마쳤다. /연합뉴스

LOTTE CINEMA | 중창로관

단체 및 대관문의 1544-8855

1관	다만 약에서 구하소서
2관	반도
3관	다만 약에서 구하소서
4관	다만 약에서 구하소서
5관	강철비2: 정상회담
6관	다만 약에서 구하소서
9관	다만 약에서 구하소서
7관 씨네커를	반도, 애니멀 크래커, 빅사크3: 켈리몬스터 대소동, 블랙아웃: 인베이전 어스
8관 씨네커를	강철비2: 정상회담

광주문화예술회관 문의 062)613-8353

노인과 바다

GAC기획공연 FOCUS 5
이재람 신작: 판소리극 <노인과 바다>
2020.08.21.(금) PM 7:30
광주문화예술회관 소극장

No. 5

광주시립교향악단 제353회 정기연주회
베토벤 250시리즈 - NO.5
2020. 8. 26.(수) PM 7:30
광주문화예술회관 대극장

Prayer, 달의 춤

광주시립합창단 제183회 정기연주회
prayer, 달의 춤
2020. 8. 27.(목) PM 7:30
광주문화예술회관 대극장